

■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종단조사 III 제2차 콜로키움 자료집

질적연구 자료분석방법의 다양성 이해

일시 | 2012년 5월 30일(수) 10:30-12:30

장소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0층 세미나실

주최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 부 일 정

질적연구 자료분석방법의 다양성 이해

사회 : 박영균(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시간	내용	비고
10:30~10:40	개회 및 발표자 소개	박영균(사회자)
10:40~10:50	환영인사	이재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
10:50~12:00	발표	김진우(발표자) 덕성여대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12:00~12:30	질의응답	참석자 전원

질적연구 자료분석방법의 다양성 이해

김진우

(덕성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I 들어가면서

학문적 글쓰기에서 자료분석방법은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 그 어디에서도 전체적인 연구설계의 큰 틀 아래에 놓여진다. 그러므로 자료분석방법만 따로 떼어내서 설명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그만큼 질적연구로 연구방향이 정립되면 연구방법과 관련된 존재론적(Ontological), 인식론적(Epistemological) 배경과 판단에서 출발하여 구상된 자료수집과 자료분석간의 순환적 과정이 이미 전제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질적분석과정이라는 것이 당초 자료를 수집하였던, 또 그 자료수집방법을 결정하게 만들었던 연구설계의 틀과 여기에 녹아 있는 철학적 배경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한편, 실제 연구과정에서는 산더미처럼 쌓인 인터뷰 내용들, 관찰한 기록들 그리고 메모 등이 연구자의 의지를 압도하기도 하고 마지막 출구의 끝이 보이지 않게 만든다. 흔히 연구과정을 모래시계에 비유한다. 넓은 문헌고찰, 이론적 틀, 기존 연구의 성과 따라잡기 등이 요구된다. 모래시계의 맨 윗부분에 해당한다. 하지만 학문적 글쓰기를 위해서는 주제를 좁혀야 하고 논의의 핵심이 명확해야 한다. 모래시계의 가운데 부분에 해당한다. 그러나 그 중간지점을 지나고 나면 이내 넓어지고 만다. 맥이 풀리는 듯한 표현인 ‘넓어지고 마는’ 이유는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각 개개의 연구참여자, 연구 Site, 각종 기록물들이 토해내고자 하는 바를 온전히 담아내고 또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다양한 관점과 이론들, 기존의 논의와 주장들과 연결시켜야 하는데 그것은 다시금 맨 윗부분과 유사한 수준의 폭넓은 시야와 조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결국 연구자는 수집된 자료의 분량에 짓눌리고, 현장에서 수집한 거칠고 생경한 글들을 학문적인 글쓰기와 논의로 그 깊이를 더해야 하는 부담감에 억압되는 것이다. 그러한 과정이 자료분석과정이다.

하지만 그렇게 절망적이지만은 않다. 그것은 거칠고 생경한 글들로부터, 그들의 목소리로부터 현장에 대한 이해의 깊이를 더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삶에 대한 다양한 Story들이 연구자의 입담을 풍성하게 하고 허공중에 의미 없이 발을 놀리면서 이론을 장황하게 설명하는 허상에 대해 일침을 가할 수 있는 목소리를 갖추게 한다. 주어진 길은 없지만 내가 간 여정이 길이

되고 다 걷고 나면 그제서는 그 주변까지 환하게 불을 밝혀준다. 지혜와 통찰에 눈이 뜨여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러한 소중한 여정을 어떻게 의미있게 걸어갈 수 있을까? 그것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어떻게 연구설계를 하느냐에 달려있다. 이미 그 때 결정된다. 연구설계는 연구를 통해 바라보고자 하는 바를 담은 그릇이라면 그 그릇의 크기와 모양, 용도는 철학적 배경에서 연유한다. 그러므로 현상학적으로 접근하는지, 내러티브로 접근하는지 등에 따라 분석방법은 매우 다양한 모습을 띠게 된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분석방법에 대해 이해하고 연구자가 선정한 연구주제에 대해 어떻게 분석할 것인지에 대한 지혜를 얻게 하는데 이 글의 목적이 있다.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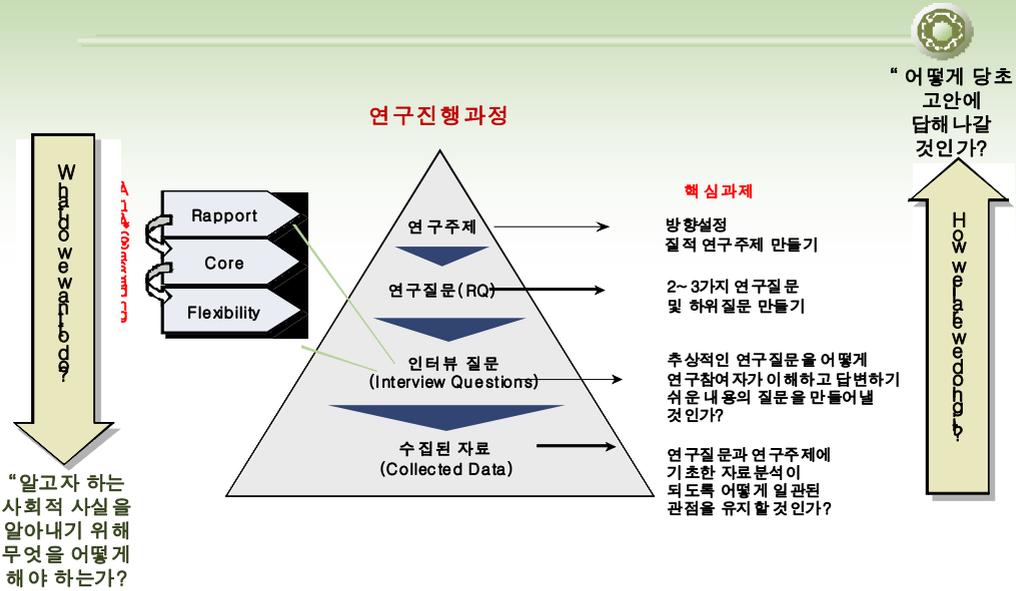
질적자료를 분석한다는 것

산더미같은 인터뷰 내용들...



이 많은 문장들 속에서 의미있는 내용을 어떻게 가려낸단 말인가???... 헐....

인터뷰... 내가 한 짓이 무엇이었지?



분석하는 과정이란...



분석하는 과정은 연구주제에 맞는 연구질문을 던져놓은 그 길을 걸어가는 것
하지만 그 길이 분명하게 보일 것인지, 보이게 만들 것인지는 다양...

● 분석하는 것...



주제와 관련하여 다양한 경로를 걸어온 사람들의 경험, 이야기 등을 다양한 기준에 따라 범주화하는 것

● 분석과정에서의 고민(1): 연역과 귀납사이



연역적: 결국 문헌연구 및 이론적 배경에 기반한 연구범위 설정과 연구질문 및 인터뷰 질문에 따라 자료수집한 것 아닌가...



귀납적: 그렇다 하더라도 인터뷰 질문에서 얻고자 하는 의도대로, 또 의도만큼만 자료수집된 것이 한번이라도 있던가? ...

대답이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미 닫힌 마음으로 연구를 수행한 것임이 틀림없을 터...
늘 기대와는 달랐던 경험... 그 전을...



III

질적자료 분석과정에서의 핵심사항

- 주제분석방법, 대화분석방법, 내러티브분석방법, 근거이론분석방법 등 다양한 분석방법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한다.
- 수집한 자료를 어떻게 분석하기 좋게 자료를 일차적으로 가공할 것인가? 라는 질문은 어떤 분석방법을 쓸 것인가, 분석프로그램을 사용할 것인가 등과 연관되어 있다. 즉, 대화분석방법을 쓰게 되면 필요한 부분은 필사될 때 대화구조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 분석과정에서는 나의 주된 관심사항, 연구주제가 무엇인가, 연구질문이 무엇인가를 항상 염두에 두고 분석에 임하고 있는가? 등의 질문을 하면서 분석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 분석결과가 나의 자의적인 판단이 아니라 자료를 충분히 반영한 내용임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

IV

질적자료 분석의 특징

1. 질적자료 분석의 창의성

질적자료 분석방법은 매우 독창적일 수 있다. 각 연구자가 접근하는 연구는 모두 개별적으로 창의적인 결과를 도출하게 된다. 그러므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얽매일 필요가 없다. 또 어떠한 추상적인 분석절차도, 어떻게 우아하게 이름붙이든 또는 정교하게 묘사하든지간에, 질적자료 분석가의 기술, 지식, 경험, 창조성, 부지런함 그리고 실제 행하는 작업을 대신할 수 없다(Patton, 2002: 466)¹⁾. 그러므로 질적자료 분석에 있어서 사전에 고려해야 할 것은 ① 무엇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가? ② 어떤 뼈저린 경험들이 나에게 값진 교훈을 주는가? 라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자료분석과정을 애벌레가 성숙하고 아름다운 나비가 되는 것으로 비유되기도 하고 연구자를 연금술사, 그 연구결과를 Collage(콜라주)로 비유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분석목적에 따라 자료분석의 방향과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2. 자료분석 시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질적연구에서 자료수집과 자료분석이 분절적이지 않다. 분석 막바지에도 분석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자료수집에 나서기도 한다. 예를 들어, 정책입안가에 대한 인터뷰를 분석과정 중간에 포함시킬 수도 있다. 아래 표는 Miles and Huberman(1994)²⁾이 제시한 도표 또는 시간에 따른 역할변화와 관련된 Matrix이다. 여기에서 수집된 자료가 어느 칸에 적합한 내용인지를 분석하여 채워넣고 그 내용이 포화되면 자료수집을 그치게 된다.

1) Patton, M. 2002. *Qualitative Evaluation and Research Methods* (3rd). Newbury Park: Sage.

2) Miles, M.B. and Huberman, A.M. 1994. *Qualitative Data Analysis* (2nd), Thousand Oaks, CA: Sage.

그러나 어느 한 칸이 채워지지 못하거나 불충분한 경우 자료분석 중간에라도 얼마든지 자료수집에 다시 나설 수 있으며 또 분석의 완결을 위해 자료는 추가로 수집되어야 하는 것이 옳다.

표 1 연대기적인 도표의 예

	전체시기	~1989년	1990~1998.6	1998.7~2000	2001~2003	2004~2007
사회환경						
당사자요구						
주요변화내용						
타정책변화						
갈등쟁점						

표 2 (시간흐름에 따른 가족구성원의 역할 변화) 관련 Role-by-Time Matrix 예

	결혼 전	적용초기단계	갈등발생단계	갈등매개단계	갈등중폭단계	갈등대처단계
결혼이민자						
남 편						
시 모						
시 부						

3. 기술과 해석과의 간극

분석을 하다보면 수집된 자료로부터 연구주제와 관련된 내용이 저절로 떠오르는 것인지, 아니면 일정 정도 연구자의 해석이 가미되는 것이 불가피한 것인지에 대한 고민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지금 내가 쓰고 있는 이 문장이 수집된 자료로부터 드러난 내용인지, 내가 해석을 내리는 것인지’에 대한 입장정리가 되지 않을 때 자연스럽게 자판에서 손을 떼고 만다. 이에 대한 입장차이는 근거이론을 둘러싼 학자들의 논쟁에서 흔히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러한 논쟁의 핵심에 관심을

두기 보다는 기술(description)과 해석(interpretation)은 주의 깊게 구별해야 한다는 것에 더 주의를 기울이고자 한다. 해석은 발견된 것을 설명하는 것인데, “왜?”라는 질문에 대답하고 특정한 결과에 대해 함의를 부여하며 분석의 패턴을 잡아내는 것이다. 이 때 흔히 주요한 묘사수준 설명에 대해 일관된 답을 찾아내는 상세하고도 고된 작업을 하기 전에 데이터를 해석하는 창조적 작업에 돌입하려는 시도를 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교과서는 조언을 하고 있다. 즉, 묘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Description comes first.)는 것이다. 묘사 수준의 발견들을 조직하고 글로 표현하는 옵션들은 아래와 같다. 첫째, Storytelling Approaches: Chronology and history(연대기), Flashback(함의 또는 결과로부터 역추적), 둘째, Case Study Approaches: People, Critical incidents, Various Settings, 셋째, Analytical Framework Approaches: Processes, Issues, Questions(조직화된 인터뷰에서 흔히 사용), Sensitizing concepts(민감한 개념들을 중심으로 분석을 엮어나가는 것, leadership vs followship)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한 사례(a case study) 또는 사례간 분석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 더 우선되어야 하는가 등을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렵다. 연구목적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한 사람(사례) 한 사람이 중요한 연구가 있는가하면 그 사례들을 관통하는 일련의 개념 또는 주제들이 분석의 주요 범주이면 사례간 분석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개별사례분석과 사례간 분석을 동시에 하면 혼란에 빠지기 쉬우므로 피하는 게 좋다는 조언은 명심할 필요가 있다.

V

질적자료 분석과정

질적자료 분석과정은 수집한 자료가 주요하게 의미하는 바를 밝혀내고 밝혀진 의미들이 보다 상위개념으로 어떻게 묶음으로 발전할 수 있는지를 탐색하고 핵심의미의 주제(Theme)를 밝혀내는 것이다. 그러한 과정, 즉 질적자료로부터 의미들을 찾아내고 핵심주제(Themes)로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을 Coding (코딩) 과정이라고 하며 찾아내어진 의미를 code(코드)라고 한다. 이러한 code는 초기에는 수집된 자료들을 군집화하고 이에 대해 특정한 속성을 부여하는 기술적 코드의 형태를 띠지만 이후에는 좀 더 추론적이고 설명적인 패턴코드로 변화하게 된다.

아래 표³⁾는 이문화 간의 만남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제결혼을 통해 가족을 이룬 구성원들은 가족 간의 상호작용 속에서 변화하며 서로의 문화에 적응해 가는 과정을 겪게 되는데 가족구성원들의 문화차이에 대한 이해는 어떠한지 알아본 것으로서 심층면접을 통해 수집된 자료에 기초한 코딩내용과 이를 추상화한 핵심범주와 주제의 도출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표 3 코드, 코드 묶음, 핵심범주 및 주제로의 범주화 예

코 드	코드묶음	핵심범주	주제
(아내)말이 통하지 않아 답답함	의사소통 애로 및 소통이 나아지면서 갈등 증폭	의사소통 애로로 답답해하면 서도 나름대로 노력함	문화차이로 서로에 대한 부정적 감정 잉태
(아내)이해하지 못한다고 구박받음			
(아내)해야 할 일 제대로 못한다고 야단맞음			
(아내)말을 알아듣기 시작하면서 더 짜증남			
(남편)아내의 의식세계를 알 수 없어 답답함	아내와의 소통부재 및 남편의 노력부족	나름대로 노력함	
(남편)계속 질문 받는 상황이 답답함			
(남편)베트남어 배우는 것 관심 없음.			
(시모)말이 안 돼서 대면부터 막막한 느낌	답답하면서도 가르치려고 노력함		
(시모)도망갈까봐 한국어교실 보내는 것 꺼려함			

3) 정혜영·김진우 2010. “베트남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문화적응과정에서 나타나는 갈등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2(2). 29-55.에서 발췌한 내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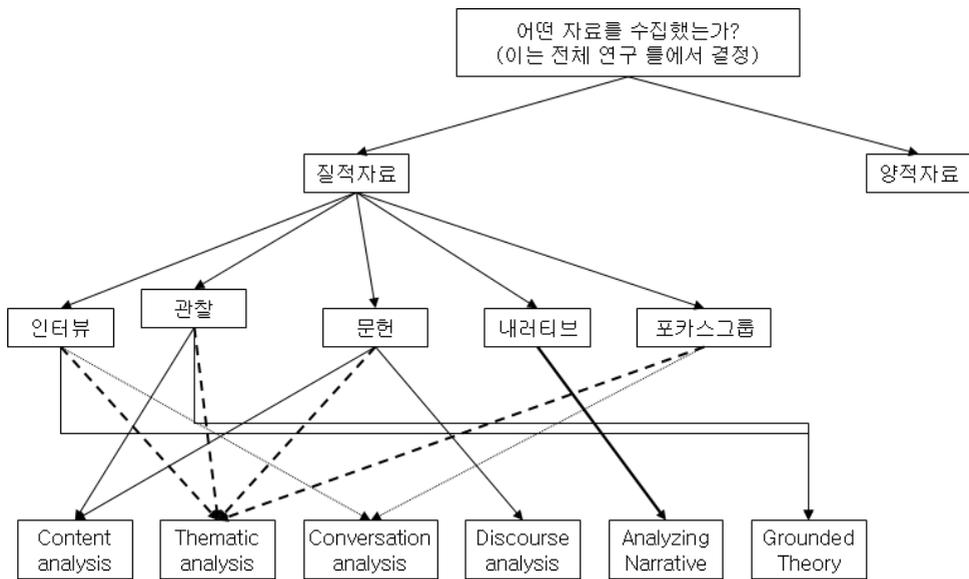
코 드	코드묶음	핵심범주	주제
(시모)시장 등 데리고 다니면서 언어교육시킴			
(아내)집안일 하지 않는 남편 이해 못함	하늘같은 남편, 남편아래 있는 아내	가부장적 가족문화로 인한 문화충돌	
(아내)TV의 멋진 남성과 다른 내 남편: 속았다			
(아내)남편은 높은 사람, 나는 낮은데 앉는 사람			
(아내)누가 하녀처럼 그렇게 살고 싶어요			
(남편)아내 버릇 나빠질까봐 가사노동 안 함	가사 일은 아내책임		
(남편)어머니가 도와주고 있으므로 나는 가사일 안함			
(시모)당연히 봉양을 받아야지	서열적 가족문화와 남자우위 고집하는 시모		
(시모)사사건건 가르치면서 수발까지 해야하는 처지			
(시모)아들을 낳았을 때 '본진' 뽑았다는 생각			
(시모)아이 잘못 키우면 년 쫓겨난다			
(아내)빨래, 설거지 등 제대로 가르쳐주지도 않고 나무라는 시어머니 원망	가르쳐주지 않고 야단치는데 대한 야속함		
(남편)일하기 싫어서 대충대충 하는 아내			
(남편)술은 적당히 먹는데 잔소리하는 아내	간섭하는 아내의 역할에 불만		
(시모)계으른 나라 사람이라서 부지런하지 않음			
(시모)시켜도 잘 못하는 며느리가 답답			
	이해노력 보다는 계으르다는 선입견		
		일하는 방식의 차이와 이해부족	

이러한 코딩 작업은 수렴(Convergence)과 분화(Divergence)의 과정 속에서 반복적인 유사성을 찾아나가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수렴현상을 분석하다가 기존에 알고 있는 지식을 보다 확장하거나(extension), 서로 다른 개념들을 연결하거나(bridging), 존재에 대한 설명으로서 적합한 새로운 정보를 제안하거나(surfacing), deviant cases를 포함시켜서 기존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상이성의 배경을 밝혀내는 것 등 분화적 작업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분화된 내용이 갖는 수렴성을 찾아나가는 나선형식 발전구조를 갖는다.

VI

질적자료 분석의 종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질적자료 분석과정은 연구자의 인식의 흐름에서 도출된다. 질적자료 분석 컴퓨터 프로그램이 이를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 주제와 개념들간의 복잡한 관계를 기억하고 표현하는데 따르는 어려움을 도와주는 것에 불과하다. 이러한 질적자료 분석은 다양하게 분류, 나열될 수 있다. 이는 Text와 Verbatim 중 어디에 치중하는지, 연구자의 목소리가 얼마나 비중을 가지는지, 단일사례인지 사례간 비교인지 등에 따라 달라진다. 아래에서는 자주 쓰이는 분석방법의 개념 정도를 설명하고자 한다.



【그림 1】 수집자료 형태와 분석방법간의 관계⁴⁾

* 자료: Matthews and Ross(2010)⁵⁾을 재구성

4) <표1> 그림은 이해를 돕기 위한 도식적 구분이며 실제로는 연구의 내용, 연구의 철학적 기반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음. 예를 들면 관찰(Observation)은 과학적인 양적 조사에서도 흔히 쓰인다는 것을 들 수 있음(Matthews and Ross, 2010).

5) Matthews, B. and Ross, L. 2010. *Research Methods: A Practical guide for the social science*. London: Pearson Education.

1. 내용분석(Content Analysis)

내용분석방법은 관심 변인이나 현상을 연구하기 위하여 산출해 놓은 텍스트(text)를 체계적으로 양적·질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을 말한다. 양적 내용분석은 메시지의 내적구조나 언어의 함축적, 복합적 의미를 분석하는 데는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양적 내용분석이 질적 내용분석과 결별될 수 없으며 양자가 공히 분석의 기초가 된다. 기호학적 분석방법은 메시지가 그 사회와 문화의 이데올로기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을 중시하면서 메시지의 이데올로기를 밝히는 데 관심을 둬으로써 양적 내용분석의 한계 극복하고자 한다. 그러나 지나치게 텍스트 중심이어서 메시지 언어가 사회적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되고 해석되는 과정을 분석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질적 내용분석은 자료 수집 전에 틀을 선정하는 양적 내용분석과는 달리 증거자료를 수집한 후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부호화 틀을 개발, 개발된 틀에 맞추어 자료 부호화한 후 수량에 초점을 두어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맥락적 해석의 측면에서 “왜?”, “어떻게?”를 강조한다.

2. 현상학적 분석

현상학적 연구의 핵심은 현상을 경험한 주체로부터 경험에 대한 진술을 통해 현상에 대한 경험의 본질을 탐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현상학적 분석의 관건은 드러난 그대로의 현상을 매개하는 언어나 텍스트 자료를 가지고 경험의 의미를 보전한 채 견져낼 수 있느냐의 여부이다. 이를 위해 현상학적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속한 학문 분야의 해석 안에서 분석과 숙달의 단계를 충실하게 지켜나갈 것을 엄격하게 요구하게 된다.

이러한 지적전통 아래 벤 매넨은 해석학적 현상학의 과정을 6가지 단계로 나누어서 제시하고 있다. ① 시작단계이다. 연구자의 진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연구자를 세계에 내맡기게 하는 현상으로 돌아가는 것, 괄호치기, 판단 중지를 하는 단계이다. 그러나 실제로 얼마나 판단 보류가 이루어졌는지 판단이 어렵다는 것이 현상학적 연구의 가장 어려운 부분이다. ② 겪은 대로 탐구하는 단계이다. 기술을 녹취하고, 녹취록을 읽고, 일인칭 서술자료를 읽음으로 이루어진다. ③ 현상을 특징짓는 본질 주제에 관해 반성하는 단계이다. 전체로서의 텍스트를 파악하는 작업에 해당하는데 이 때 던져야 하는 질문은 ‘전체로서의 텍스트의 근원적 의미나 주요 의의를 포착하는 간결한 문장은 무엇일까?’ 즉, 본질 주제는 어떤 언어로 기술될 수 있을까를 고려해 보는 것이다.

④ 부분과 전체를 고려함으로써 전체적인 연구의 맥락을 잡는 단계이다. 텍스트에서 나타나는 의미있는 진술들을 끌어내는 작업, 선택적 읽기 접근과 상세한 읽기 접근에 해당한다. 이 때 “어떤 진술이 기술된 현상이나 경험에 대해 본질적인 것을 드러내고 있는가?”, “이 진술이나 진술 덩어리가 기술된 현상이나 경험에 대해 드러내는 것은 무엇인가?” 등의 질문이 중요하다. ⑤ 글쓰기와 고쳐쓰기의 기술을 통해 현상을 기술하는 단계이다. 직관된 본질 주제를 중심으로 본질의 의미 구조를 세분화하여 밝히고, 이 의미구조를 기술하고 다시 고쳐쓰기를 반복, 모든 연구참여자들에게 공통으로 출현하는 의미를 직관적으로 파악하고 반성하면서 정신 분열 현상의 본질적 요소들을 결정해야 한다. ⑥ 현상과 맺고 있는 강력하고도 지향적인 사회복지적 관계를 유지하는 단계이다. 해석학적 현상학은 연구자가 특정 관심이나 학문 분야를 염두에 두고 현상을 지향한다는 의미이므로 사회복지적 관심을 가진 필자가 지향한 현상의 본질에 대한 해석을 기술해야 한다.

3. 대화분석(Conversation Analysis)

대화분석방법은 화자와 청자가 나누는 이야기의 순서에 따른 사회적 상호작용을 있는 그대로 재현해 내는데 그 목적이 있다(Silverman, 2001). 대화분석방법을 채택하는 연구자는 상호작용과정에서 대화의 세부내용과 관련된 맥락을 세밀하게 그리고 주의 깊게 이해해야 한다(Psathas and Anderson, 1990). 대화분석방법에서는 서로 주고받는 대화(turn-taking conversation)를 정확하게 기술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 Atkinson and Heritage(1984)의 필사체계가 매우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보다 넓게는 이러한 필사방법이 대화의 정확한 재생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분석적으로 중요한 상호작용적 대화의 모습을 총체적으로 드러내는데’(Hutchby and Wooffitt, 1998: 85)에까지 이르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대화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원래 녹취된 자료에 대한 반복적 청취가 핵심이다.

[P1, 79-99]⁶⁾

- 1 연구자 그 회사에서 일하던 것 어땠어요?
2 안병수 긴장:됐어요↓(1.2) 어 실수하구:요 ° 잘 할 수가 없었어요°
3 연구자 재미있었어요? 아니면 힘들었어요?
4 안병수 때로는 재미있었어요 그런데 어렵기도 하고 헤헤(1.0) 모두
5 연구자 그 때 생각하면 어때요?
6 안병수 (2.8) 잘 기억 못해요↓
7 연구자 잘 기억이 안 나요? 그 때 그 사장님 기억해요?
8 안병수 =왜요?((놀라면서))
9 연구자 그냥 음: 안병수씨가 기억하고 있나 궁금해서요.
10 안병수 다 지워버렸어요 헤헤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들기기 시작했다))

4. 담론분석(Discourse Analysis)

담론연구는 언어 사용자 또는 담론 생산자를 언어과정의 능동적인 주체로 두고, 그들이 일상적인 사회생활 속에서 언어규칙을 이용하여 자신의 의도를 관철하고 의미를 창출하며 목적을 달성하는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전체적 맥락(Context) 속에서 담론을 연구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담론분석은 인간적 상호작용에서 생겨난 언어적 또는 언어적 의미를 갖는 비언어적 산물, 즉 담론이나 텍스트를 분석하여 그 속에서 사회적, 문화적, 이념적, 심리적으로 구성된 현실(constructed reality)을 찾아내는 것을 분석의 목표로 삼는다.

6) 'P1'은 안병수에 대한 면접이라는 것을 표시하는 기호이고, '79-99'라는 번호는 면접내용이 질적 자료에 대한 컴퓨터 프로그램인 Atlasti Programme에 입력되어 분석될 때 부여된 문장번호 내에서 77줄에서 99줄까지의 내용임을 의미한다.

5. 분류체계분석과 성분분석⁷⁾

사회과학 분야에서 1950년대에 나타난 New Ethnography(Ethnoscience)를 토대로 심리학과 언어학을 접목시킨 인지인류학이 등장하였고 이는 1970년대에 이르러 인류학의 한 하위분야로 자리매김 되었다. 인지인류학에서는 현장연구원에게 여러 단계의 질문을 실시하는 체계적 면담과 참여관찰과 이에 대한 분석을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연구방법을 사용하는데 가장 대중적인 분석방법으로 분류체계분석과 성분분석 등이 있다.

1) 분류체계분석과 성분분석의 개념 및 질문유형

분류체계분석은 현장구성원들이 자신을 둘러싼 세계를 개념화하는 분류체계를 충실히 파악함으로써 각 사회의 개념적 세계의 구조를 설명하고자 하는 방법을 말한다. 한편, 성분분석은 참여관찰현장이나 면담과정에서 현장 구성원이 사용한 어휘(개념)의 의미가 사용되는 맥락 속에서 정의해 보고자 하는 방법을 말한다.⁸⁾

질문유형과 순서는

- ① 대체질문(예: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사는 고객이 보통 하는 일의 단계에는 “_____”이 있다):
알아보고 싶은 영역에 어떤 개념들이 있는지의 리스트를 가능한 한 손쉽게 얻는 방법
- 가게들어가기, 손수레고르기, 방향과 통로를 정하기, 육류를 고르기, 우유제품 집어내기, 채소류 고르기, 계산대 줄 서기, 계산하기, 산 식료품 운반하기, 가게 나서기
- ② 대조집합분류질문: 대체질문으로 찾은 용어들을 비슷한 것끼리 몇 묶음으로 분류하는 것으로서 여러 다른 기준으로 시도 가능(아래 내용 참조) /이는 후속질문을 통하여 각 묶음을 세분할 수 있는지, 분류체계를 달리했을 때 함께 묶여질 수 있는 게 있는지 등을 살피는 단계(계산하기를 계산대 줄 선택하기, 줄에서 기다리기, 카트의 물건 계산대 꺼내놓기, 돈 지불하기, 계산대 떠나기 등) (식료품 고리기에서 하위단계를 추가하는 경우)

7) 이 내용은 덕성여대 문화인류학과 이용숙 교수님이 2011년 6월 15일 「한국에스노그래피연구소」와 「덕성여대에스노그래피연구소」에서 특강한 자료의 일부를 재구성한 것임

8) 분류체계분석에서는 구조적 질문 5가지를, 성분분석에서는 대조질문 7가지를 사용하는데 이는 연구자로 하여금 지나치게 복잡하고 어렵다는 느낌을 준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덕성여대 이용숙 교수는 이 중 5개의 질문만 사용하여 처음에는 대체질문(괄호넣기질문)으로 시작하여 답을 포스트잇에 적도록 함으로써 쉽게 게임같이 느껴지도록 재개발하였다.

- 1단계: 슈퍼마켓 들어가기
- 2단계: 카트 고르기
- 3단계: 방향과 통로를 정하기
- 4단계: 식료품 고르기
 - 4-1단계: 육류를 고르기
 - 4-2단계: 우유제품 집어내기
 - 4-3단계: 채소류 고르기
- 5단계: 계산대 줄 서기
- 6단계: 계산하기
- 7단계: 산 식료품 운반하기
- 8단계: 가게 나서기

표 4 대조집합분류질문 후의 내용 카테고리 표현방법 예

S사의 핸드폰 구매 시 고려사항	제품의 외형적 가치	끌리는 디자인	귀여운 폰트		
			예쁜 디자인		
			아담 가벼움		
			편리한 문자패드		
		컬러			
	브랜드 가치	기능	카메라	좋은화질 셀카기능	
			LCD창	크다 튼튼	
			예쁜벨소리		
			기본사항	전화	
				문자	
				DMB	
				게임	
				외장메모리	
			통신사		
선호브랜드					
적정가격					
최신형모델					
희소성					

- ③ 3원 대조질문(Triadic contrast question)3개의 개념에 대한 대조질문): 같은 영역에 속한 세 개의 포스트잇(또는 각기 다른 묶음에서 하나씩 선택)을 제시하고 “이 중 어느 것 두 개가 비슷하고 어느 것 하나가 다릅니까?”와 같은 질문을 하여 분류기준을 찾음
- 예를 들어 귀여운 폰트, 예쁜 벨소리, 아담하고 가벼움 - 이 셋을 고르고 두 개와 나머지 하나로 분류할 때 나타나는 기준이 있는지를 살펴봄. 귀여운 폰트와 예쁜 벨소리를 내 의지대로 바꿀 수 있지만 무게는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 자신의 의지에 따른 변경가능성 이라는 기준이 눈에 들어오게 됨.
- ④ 유도된 대조질문: 위의 기준을 나머지 모든 포스트잇에 적힌 단어에 대해서도 적용해 보도록 질문
- 3원 대조질문을 통해 나타난 새로운 기준에 따라 기존의 개별사항들을 살펴보면서 적용가능성을 탐색
- ⑤ 등급질문 : 포스트잇의 모든 개념들을 일정한 기준에 의한 순서에 따라 배열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배열이 끝난 후에는 “어떤 기준으로 배열한 것인지”를 질문(가장 많이 하는 순서, 가장 중요한 순서 등)

표 5 여대생이 핸드폰을 구매하는데 따른 주요 고려사항

구매시 고려사항 (분류체계분석)	대조의 차원 (성분분석)	필수적인 고려요소 인가?	디자인과 관련성이 있는가?	나의 노력으로 바꿀 수 있는가?	내게 가장 중요한 순서	편리한 순서
제품의 외형적 가치	귀여운 폰트					
	예쁜 디자인					
	아담 가벼움					
	편리한 문자패드					
브랜드 가치	좋은 화질					
	셀카기능					
	LCD창					
	인터넷 품질					

구매시 고려사항 (분류체계분석)	대조의 차원 (성분분석)	필수적인 고려요소 인가?	디자인과 관련성이 있는가?	나의 노력으로 바꿀 수 있는가?	내게 가장 중요한 순서	편리한 순서
브랜드 가치	전화					
	문자					
	DMB					
	게임					
	외장메모리					

이러한 다섯 가지 질문에서 두 번째까지의 질문을 통해 분류체계분석표를, 전체 5가지 질문을 통해 성분분석표를 작성하게 된다.

6. 내러티브 분석⁹⁾

내러티브 연구는 인간은 이야기하고 싶어 하고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삶을 정돈하고 싶어 하는 속성이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 과거의 사건에 대하여 이야기한다는 자체가 인간의 보편적인 행동이며 유년기로부터 배워온 기본적인 담화형태에서 출발한다고 본다. 과거사건에 대한 현재화, 현재의 상태에 대한 리뷰(review), 미래에 대한 예상·추측의 현재화, 과거와 미래 그리고 내적 및 외적 사건에 대한 스토리텔링(storytelling)이 삶의 핵심을 이룬다. 내러티브 분석에서는 전통적인 질적자료 분석방법이 Text를 문맥에 따라 분할하여 단편적으로 해석하고 일반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는 내러티브 진술을 특징짓는 순차적이고 구조적인 특징을 제거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비판한다. 그러므로 정보제공자들이 경험한 자신의 삶에서의 행동과 사건을 이해하기 위하여 어떠한 순서로 자신의 경험을 배열하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내러티브분석의 목적이며 - 단순히 언어를 통해 나타난 내용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이야기하는 형식에도 관심을 갖게 된다.

9) 아래 표는 Catherine Kohler Riessman이 지은 「Narrative Analysis」를 대한질적연구간호학회에서 번역한 「내러티브 분석」의 pp69-70의 내용을 일부 재구성한 것임.

표 6 내러티브 분석의 구조

번호	정리된 이야기
001	L: 예(1) 통상적으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002	본인이 DES 여아라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003	그리고 어떻게 받아들였나요
004	N : (1)음, 웃기는 일이지만 자세한 기억이 남아 있지 않네요.
005	제가 기억하기로는, 음(1)(웃)
006	제가 19살 무렵
007	제가, 우리가 -
008	저는 대학생이었는데
009	피임을 하려고 산부인과에 갔었어요
010	그리고 우연하게도 처음 검사를 하는데
011	의사는, 의사가 나한테 선 질환(1)이 있다는 걸 보고 내가 DES 여아라는 것을 알아냈어요, 음
012	그래서 그가, 아시죠, 그 의사가 말해줬어요(2.5)
013	그 후로 어떻게 엄마하고 나 사이에(웃음) 이 문제를 분명하게 했는지는 기억이 잘 안나네요
014	그러니까. (1.5)그게 어머니는 내가 산부인과에 다닌다는 것을 몰랐거든요
015	어머니가(1)
016	내 생각으론 바로 그 직후,
017	어머니가 말했어요
018	음, 그리고 나도 “벌써 알고 있다” 고 했던가 아니면, (숨을 들여쉬고)
019	음(1) 그렇지만 처음부터 직접 어머니가 말해준 건 아니었어요.
020	음.. 이 의사가 알려주었죠(1.5)
021	L : 네...
022	N : 또 그 당시에 나는 피임하는 데에만 신경을 쓰고 있어서
023	말하자만 별로, 음
024	정말 그게 내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 않았어요
025	(웃)드문 기억이 났었죠

번호	핵심 내러티브
요약(Abstract)	
002	본인이 DES 여아라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003	그리고 어떻게 받아들였나요
출발근원(Orientation)	
006	제가 19살 무렵
008	저는 대학생이었는데
복합적 행동(Complication Action)	
009	피임을 하려고 산부인과에 갔었어요
011	의사는, 의사가 나한테 선 질환(1)이 있다는 걸 보고 내가 DES 여아라는 것을 알아냈어요, 음
012	그래서 그가, 아시죠, 그 의사가 말해줬어요(2.5)
016	내 생각으론 바로 그 직후,
017	어머니가 말했어요
018	음, 그리고 나도 “벌써 알고 있다” 고 했던가 아니면, (숨을 들여쉬고)
해결/종결(Resolution/coda)	
022	또 그 당시에 나는 피임하는 데에만 신경을 쓰고 있어서
023	말하자만 별로, 음
025	(웃)(1.5) 드문드문 기억이 났었죠

7. Analysis in Grounded Theory¹⁰⁾

- 자료수집과 자료분석간의 순환적 구조
- Constant Comparison and Saturation Point

10) 근거이론에 입각하여 쓰인 논문은 한국에서도 많이 제시되어 있다. 박사학위 논문 (예를 들어 서울대 최금해 박사학위논문)을 살펴보면 분석과정을 포함한 연구과정이 자세하게 나와 있으므로 어떻게 분석하는지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VII

글을 맺으며

질적자료 분석은 일정한 틀 내에서 창의성을 갖는다. 그 틀은 외부적인 제약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연구 패러다임을 충실히 추구하다 보면, 또 추구하기 위해 기울인 최선의 학문적 노력 끝에 도출되는 자연스러운 요구형태다. 그 틀 또한 둘 이상의 질적연구 갈래를 포섭하다 보면 양자를 아우르는 창의적 분석과정이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자연스럽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왜 그러한 분석과정 또는 분석결과를 보여주는 과정과 결론에 도달했는지'에 대한 자기명증이 보다 중요해진다. 교과서에서 설명하는 틀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한 창의성을 바탕으로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들은 출현(emergence)과 해석(interpretation), 포화점(Saturation Point)에 대한 인지, 분석결과의 질적 수준 등이다. 이러한 것들은 현재까지 학술논문에서 깊이 있게 다루어지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게재된 논문에서도 이와 관련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학술지에 게재되는 경우가 더러 있다. 양적연구자들의 공격에 너무나 취약하게 노출되는 약점이다. 나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재를 허용하는 관대함이 질적연구 진영의 토대를 스스로 허물어뜨리는 미래를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없지 않다. 그만큼 질적연구자들의 밑천이 연구자 수에 있어서나, 연구 패러다임에 대한 자신감에 있어서 얕다. 그러므로 질적 연구의 경계를 허물어뜨리고 창의성에 기반한 기존 프레임 깨기 노력이 더 절실하게 필요할 때다¹¹⁾.

11) 지적장애인의 의사소통에 관심이 있는 본인으로서 지적장애인의 의사소통에 대해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동영상 녹화를 통해 의사소통 변화의 미세한 부분에 대한 포착에 관심이 더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2012. 5. 26일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동국대 조은교수가 사당동에서 철거되어 상계동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할머니 한 가족을 25년 동안 추적한 글과 동영상을 통해 「영상사회학」, 「영상에쓰노그라피」 등에 대한 관심과 시도를 주장하셨는데, 이러한 모습이 기존 프레임 깨기의 첨병 역할이 아닌가 싶다.

별첨: 대화분석을 위한 필사 범례

게일 제퍼슨(Gail Jefferson)에 의해 개발된 필사범례는 아래와 같다.

(1.3) 괄호안의 숫자는 시간간격을 초단위로 표현한 것

(.) 괄호안의 점은 0.2초보다 짧은 정지(pause)를 의미

= 다음 대화가 바로 이어지는 경우를 의미

[] 대화자가 동시에 말함으로써 말한 내용이 겹쳐지는 경우

.hh 숨을 들이마시는 경우인데 'h'가 많을수록 들숨이 길어지는 것을 의미

Hh 숨을 내쉬는 경우로서 'h'가 많을수록 날숨이 길어지는 것을 의미

(()) 비언어적 활동에 대한 설명. 또 녹취자의 다른 특징에 대한 정황을 녹취자가 설명하는 것으로도 쓰임.

- 바로 앞 단어 또는 소리의 예리하게 끊긴 음을 의미

: 화자가 앞서의 소리 또는 글자를 길게 늘어뜨리는 경우로서 콜론이 많을수록 더 길게 늘어뜨린 것을 의미

! 흥분된 또는 강조하는 목소리의 톤을 의미

() 녹취된 테이프에서 불명확한 부분을 의미

(guess) 화자가 말한 불명확한 내용에 대해 필사자가 최선을 다해 추측한 내용을 의미

. 문장의 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목소리의 톤이 떨어지는 것을 멈춘 것

, 계속되는 억양을 의미

? 의문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올라가는 억양을 의미

* 바로 이어지는 선듯한 목소리

↑ ↓ 억양의 올라가고 내려가는 변화를 표시. 변화의 바로 앞에 위치

a: 콜론 앞에 바로 밑줄을 그으면 음감에 있어 다소 떨어지는 것을 의미

a: 콜론에 밑줄을 그으면 음감에 있어 다소 올라가는 것을 의미

Disability 화자의 강조점을 의미

진하게 주변의 것보다 눈에 띄게 크게 이야기되어진 부분(진하게 표기)을 의미

° ° 주변의 것보다 눈에 띄게 조용히 이야기되어진 부분(양 동그라미 사이)을 의미

> < 주변의 것보다 매우 빨리 말해 진 부분을 의미

[P1, 23-30] 대화분석에 쓰인 대화내용이 면접녹취록 중 어디에서 추출된 것인지를 표시하는 것으로 P1은 누구와의 면접인가를, 23-30은 해당 면접내용 중 관련 줄 번호를 의미

MEMO

MEMO

MEMO

MEMO

MEMO

세미나자료집 12-S22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종단조사 Ⅲ 제2차 콜로키움 자료집
- 질적연구 자료분석방법의 다양성 이해 -

인 쇄 2012년 5월 29일

발 행 2012년 5월 30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발행인 이 재 연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주)문영사 전화 02)2263-5087 대표 김희자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2) 2188-8844(연구기획·대외협력팀)